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제주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11월 12일 -



제주특별자치도
농 업 기 술 원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道농기원, 제주 메밀 분말 제조 기술 보급 사업화 추진-6면	미래농업육성과	삼다일보
○	농업미생물 86t 공급…이용 농가 90% 만족-3면	동부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제31회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 11일 개최-3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제31회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농업발전 유공자 표창-6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일보
○	‘농업인의 날 제주도 기념대회’ 개최-8면	기술지원조정과	삼다일보
○	동부농업기술센터 감황키위 기탁-12면	동부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동부농업기술센터, 이웃돕기 감황키위 기탁-9면	동부농업기술센터	삼다일보
○	동부농업기술센터 6·25 참전유공자에 기탁-12면	동부농업기술센터	한라일보
○	서부농업기술센터, 역량강화 교육-12면	서부농업기술센터	제주매일
○	[기고] 인공지능(AI)이 만드는 미래 농업 관측의 표준-14면(김태우)	농업디지털센터	제주매일
○	[기고] 제주농업, 위기 너머 희망을 심다-10면(이미숙)	제주농업기술센터	제주일보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10면	기술지원조정과	제민일보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8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13면	기술지원조정과	삼다일보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6면	기술지원조정과	한라일보
○	2026제주감귤박람회 개최-9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일보
○	농산물가격안정제 품목-3면	-	제주일보
○	콩 수확-4면	-	한라일보
○	브로콜리 수확하는 농민들-6면	-	한라일보
○	“제주감귤 먹고 수능 대박나세요” -6면	-	한라일보

(삼다일보: 2026년 11월 12일)

○ 道농기원, 제주 메밀 분말 제조 기술 보급 사업화 추진-6면

道농기원, 제주 메밀 분말 제조 기술 보급 사업화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17일까지 '메밀 증숙분말 제조 기술'을 이전받을 가공업체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술이전은 제주 메밀의 가공성을 높인 분말 제조 기술을 산업 현장에 보급해 다양한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메밀 가공제품을 생산하려는 업체다. 기술은 여러 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통상 실시 방식으로 유상 이전하고 이용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다.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는 제주산 메밀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매년 판매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농업기술원 미래농업육성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기술원은 이달 하순 적격심사를 거쳐 기술이전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선정 업체에 제조기술의 현장 적용에 필요한 기술상담을 지원하고 올해 가공제품 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와 협력해 제품화 및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균 농업기술원장은 "이번 기술이전이 제주 메밀의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개발 기술이 실제 제품 생산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1. 12.
이정민 기자 73jmlee@sam[illegible]
삼다일보 6

(제민일보: 2026년 11월 12일)

○ 농업미생물 86t 공급…이용 농가 90% 만족-3면

농업미생물 86t 공급…이용 농가 90% 만족

100곳 만족도 조사 결과

제주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가 농업미생물 이용 농가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고초균·광합성균·유산균 등 농업미생물 3종·86t을 1만7751농가에 공급해 토양관리와 작물 재배를 지원했다.

이어 농업미생물 공급 서비스의 운영 효과를 점검하고 지난달 30일까지 이용농가 100곳을 대상으로 활용 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했다.

공급서비스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61%, '만족'이 29%로, 응답자의 90%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농업미생물 사용 뒤 체감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는데 작물 생육 촉진(77.9%)과 품질 향상(70.7%)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비료 사용량 절감(52.4%)과 수량 증대(50.6%)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효과를 체감했고 말했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활용 특성과 개선 의견을 바탕으로 공급 서비스를 보완하고 내년부터 농업기술원 '제주DA' 앱을 활용한 농업미생물 분양 신청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11. 12.
제민일보 3

(제주매일: 2026년 11월 12일)

○ 제31회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 11일 개최-3면

제31회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 11일 개최

도, 유공자 등 포상

제주도는 11일 조천체육관에서 '제31회 농업인의 날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김필환)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농업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 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주 농업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 4명과 영농조합법인 2곳이 6개 부문에서 '제주도 농업인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는 △일반작물 부문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 △감귤 부문 허철훈 △친환경



제31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농업 부문 김효준 △축산 부문 강방철 △여성농업인 부문 원남정 △유통가공 부문 제주삼다알로에영농조합법인이다.

이와 함께 중앙 단위 포상 6점, 우수 농업인 표창 22점, 감사패 5점 등 이날 총 39점의 포상이 이뤄졌다.

11. 12.
제주매일 3
박성철 기자

(제주일보: 2026년 11월 12일)

○ 제31회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농업발전 유공자 표창-6면

제31회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농업발전 유공자 표창



제31회 농업인의 날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대회가 11일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열렸다.

제31회 농업인의 날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대회가 11일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열렸다.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김필환)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농업인의 화합과 함께 자긍심을높이고, 제주 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도내 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와 **김승준 도의회 부의장**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주농업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 4명과 영농조합법인 2곳이 6개 부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상'을 받았다.

중앙 단위 포상에서는 **김덕문씨(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가 대통령 표창, **장석진씨(제주도4-H본부)**와 **김창만씨(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가 국무총리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장옥희씨((사)한국여성농업인 제주시연합회), **오영순씨((사)제주도만감류연합회)**, **정미용씨((사)한국블루베리연합회 제주도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창흠 부지사는 "수입 만다린 증가와 경영비 부담, 폭염과 가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주농업을 지켜온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농업인들의 땀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품질 농산물 출하와 안정적인 유통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11. 12.
제주일보 6

(삼다일보: 2026년 11월 12일)

○ ‘농업인의 날 제주도 기념대회’ 개최-8면

‘농업인의 날 제주도 기념대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제31회 농업인의 날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김필환)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김승준 도의회 부의장, 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덕문씨(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가 대통령 표창을, 장석진씨(제주특별자치도4-H본부)와 김창만씨(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가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자는 장옥희씨(한국여성농업인 제주시연합회), 오영순씨(제주특별자치도만감류연합회), 정미용씨(한국블루베리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다.

이 외에 22명이 우수농업인 표창을, 5명이 감사패를 받았고 제주 농업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 4명과 영농조합법인 2곳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상을 수상했다.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는 “수입 만다린 증가와 경영비 부담, 폭염과 가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주 농업을 지켜온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농업인들의 땀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품질 농산물 출하와 안정적인 유통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11. 12.
삼다일보 8

(제민일보: 2026년 11월 12일)

○ 동부농업기술센터 감황키위 기탁-12면



동부농업기술센터 감황키위 기탁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미)는 10일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1000만원 상당 감황키위 250kg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물품은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를 통해 도내 참전유공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11. 12.
제민일보 12

(삼다일보: 2026년 11월 12일)

○ 동부농업기술센터, 이웃돕기 감황키위 기탁-9면

동부농업기술센터, 이웃돕기 감황키위 기탁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미)는 지난 10일 100만원 상당의 감황키위 250㎏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김수미 소장은 "정성껏 재배한 감황키위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과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1. 12.
삼다일보 9

(한라일보: 2026년 11월 12일)

○ 동부농업기술센터 6・25 참전유공자에 기탁-12면



동부농업기술센터 6·25 참전유공자에 기탁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미)는 지난 10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감황키위 250kg(1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11. 12.
한라일보 12

(제주매일: 2026년 11월 12일)

○ 서부농업기술센터, 역량강화 교육-12면



서부농업기술센터, 역량강화 교육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강병수)는 지난 10일 안덕면 생활개선회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11. 12.
제주매일 12

(제주매일: 2026년 11월 12일)

○ [기고] 인공지능(AI)이 만드는 미래 농업관측의 표준-14면

[기고] 인공지능(AI)이 만드는 미래 농업관측의 표준

농업기술원
농업디지털센터장



김 태 우

제주는 대한민국 겨울철 신선채소 공급의 핵심 생산기지다. 육지부 농경지가 한파와 결빙으로 생산활동이 위축되는 겨울에도 감귤을 비롯해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마늘 등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한다. 이러한 제주 농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작물의 생육과 생산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정밀 농업관측이 중요하다.

제주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지형과 고도, 해양환경이 달라 지역마다 기후와 토양 특성이 다르고 주력 재배작물도 뚜렷하게 구분된다. 제주 전체의 평균적인 기상 및 예측 정보로는 농경지별 생육환경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제주 전역 206개 지점에 기상관측장비 39 지점, 디지털트랩 82 지점, 토양수분센서 75 지점, 서리 관측장비 10 지점 등 IoT 관측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한 16개 기관과 협력해 기상 · 토양 · 병해충 · 농작업 · 농업경영 등 제주농업 데이터 40종을 수집하고 농경지 단위로 연계해 필지별 생산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드론을 활용한 농업관측도 제주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매년 10~11월 제주 전역의 농경지를 촬영해 주요 월동작물의 재배면적과 작황을 파악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표본지역의 촬영 결과만으로도 제주 전체의 재배면적과 작황을 추정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관측 표본설계를 완료한 상태다.

또한 농업위성센터와 위성영상 기반 농업관측을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성영상을 활용해 광역 단위 농작물의 생육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농업관측은 이제 지상뿐만 아니라 하늘과 우주에서도 진행돼야 한다.

농업의 미래는 데이터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고 현장의 의사결정에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현장 IoT센싱과 40종 농업데이터, 드론 · 위성영상의 융합을 인공지능(AI) 기반 작황 · 생산량 예측으로 발전시켜 농업인이 체감하는 정밀 농업을 제시해야 한다.

제주는 지역의 특수성을 강점으로 삼아 대한민국 미래 농업관측의 새로운 표준이자 전국 확산형 선도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11. 12.
제주매일 14

(제주일보: 2026년 11월 12일)

○ [기고] 제주농업, 위기 너머 희망을 심다-10면

제주농업, 위기 너머 희망을 심다



나의 의견

이 미 숙

道 농업기술원
인력육성팀장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농업문화, 우수한 농산물이라는 훌륭한 자산을 갖고 있다. 제주 대표 산업이자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감귤과 월동채소, 아열대작목, 농촌관광을 포함한 농촌융복합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결합한다면 제주 농업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오늘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과 농자재 가격 상승,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농업 현장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벗어나 기술과 가공, 유통, 체험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스마트농업과 디지털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고,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농업을 지키는 이들의 노력과 땀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농업은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며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소중한 공익적 산업이다.

제주 농업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 농촌에는 아직 키워야 할 꿈이 있다. 우리가 농업에서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다. 제주 농업의 희망은 농업인들의 열정과 실천,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모일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 변화에 도전하고 서로 협력한다면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오늘의 땀이 내일의 풍요가 되고, 지금의 도전이 미래 제주 농업의 자랑이 되기를 기대한다.

11. 12.
제주일보 10

(제민일보: 2026년 11월 12일)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10면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

□ 추진개요
- 기간 :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 5일간
- 장소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3)
- 참가인원 : 6.5만명 내외
- 행사성격 : 감귤산업의 현재와 미래, 산업·학술·문화·체험형 융복합 박람회
-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 주요프로그램
- 공식행사 : 개막식, 폐막식, 술 대회 준비위원회 발족식
- 학술·비즈니스 : 감귤학회, 신품종 감귤 강연, 바이어상담회, 농업부분 온실가스감축사업 설명회, 라이브커머스
- 경연행사 : 청년농업인혁신사례발표, 어린이사생대회, 감귤디저트 경연
- 문화·공연 : 귤빛가요제, 열린무대, 귤빛버스킹
- 체험행사 : 감귤따기, 감귤청·잼 만들기, 감귤꽃이 피었습니다. 감귤젠가 등
- 빅 이벤트 : “감귤왓! No.1 감귤을 찾아라” - 감귤품장 경품 체험

□ 입장권안내
- 현장구매 : 2000원
- 사전예약 및 제주도민 : 1000원
- 무료입장 : 국가(독립)유공자, 만 13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른 등

□ 문의
-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762-3091)
- 제주감귤박람회 운영사무국(☎ 762-3380)

11. 12.
제민일보 10

(제주매일: 2026년 11월 12일)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8면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

□ 추진개요

○ 기　간: 2026. 11. 19.(목) ~ 11. 23.(월) / 5일간

○ 장　소: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3)

○ 참가인원: 6.5만 명 내외

○ 행사성격: 감귤산업의 현재와 미래, 산업·학술·문화·체험형 융복합 박람회

○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 주요프로그램

○ 공식행사: 개막식, 폐막식, 술 대회 준비위원회 발족식

○ 학술·비즈니스: 감귤학회, 신품종 감귤 강연, 바이어상담회, 농업부분 온실가스감축사업 설명회, 라이브커머스

○ 경연행사: 청년농업인혁신사례발표, 어린이사생대회, 감귤디저트 경연

○ 문화·공연: 귤빛가요제, 열린무대, 귤빛버스킹

○ 체험행사: 감귤따기, 감귤청·잼 만들기, 감귤꽃이 피었습니다. 감귤젠가 등

○ 빅 이벤트: "감귤왓! No.1 감귤을 찾아라" - 감귤품장 경품 체험

□ 입장권안내

○ 현장구매: 2,000원

○ 사전예약 및 제주도민: 1,000원

○ 무료입장: 국가(독립)유공자, 만 13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른 등

□ 문의

○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762-3091)

○ 제주감귤박람회 운영사무국(732-3380)

11. 12.
제주매일 8

(삼다일보: 2026년 11월 12일)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13면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기간=11월 19일(목)~23일(월)/5일간

▲장소=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3)

▲참가 인원=6만5000명 내외

▲행사성격=감귤산업의 현재와 미래, 산업·학술·문화·체험형 융복합 박람회

▲주최/주관=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주요 프로그램

△공식 행사=개막식, 폐막식, 술 대회 준비위원회 발족식

△학술·비즈니스=감귤학회, 신품종 감귤 강연, 바이어상담회, 농업부분 온실가스감축사업 설명회, 라이브커머스

△경연 행사=청년농업인혁신사례발표, 어린이사생대회, 감귤디저트 경연

△문화·공연=귤빛가요제, 열린무대, 귤빛버스킹

△체험행사=감귤따기, 감귤청·잼 만들기, 감귤꽃이 피었습니다. 감귤젠가 등

△빅 이벤트='감귤왓! No.1 감귤을 찾아라'-감귤품장 경품 체험

▲입장권 안내

△현장 구매=2000원

△사전예약 및 제주도민=1000원

△무료 입장=국가(독립)유공자, 만 13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른 등

▲문의=㈔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762-3091, 제주감귤박람회 운영사무국 732-[illegible]

11. 12. 삼다일보 13

(한라일보: 2026년 11월 12일)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6면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

□ 추진개요

○ 기 간: 2026. 11. 19.(목) ~ 11. 23.(월) / 5일간
○ 장 소: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3)
○ 참가인원: 6.5만 명 내외
○ 행사성격: 감귤산업의 현재와 미래, 산업·학술·문화·체험형 융복합 박람회
○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 주요프로그램

○ 공식행사: 개막식, 폐막식, 술 대회 준비위원회 발족식
○ 학술·비즈니스: 감귤학회, 신품종 감귤 강연, 바이어상담회, 농업부분 온실가스감축사업 설명회, 라이브커머스
○ 경연행사: 청년농업인혁신사례발표, 어린이사생대회, 감귤디저트 경연
○ 문화·공연: 귤빛가요제, 열린무대, 귤빛버스킹
○ 체험행사: 감귤따기, 감귤청·잼 만들기, 감귤꽃이 피었습니다. 감귤젠가 등
○ 빅 이벤트: "감귤왓! No.1 감귤을 찾아라" – 감귤품장 경품 체험

□ 입장권안내

○ 현장구매: 2,000원
○ 사전예약 및 제주도민: 1,000원
○ 무료입장: 국가(독립)유공자, 만 13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른 등

□ 문의

○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762-3091)
○ 제주감귤박람회 운영사무국(732-3380)

11. 12.
한라일보 6

(제주일보: 2026년 11월 12일)

❍ 2026제주감귤박람회 개최-9면

▲2026제주감귤박람회 개최 △

일시=11월 19일(목)~11월 23일(월)

△장소=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

11. 12.
제주일보 9

(제주일보: 2026년 11월 12일)

○ 농산물가격안정제 품목-3면

농산물가격안정제 품목

내년 노지감귤 포함 촉구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11일 농산물 가격 하락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내년 농산물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에 노지감귤을 포함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노지온주감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감귤 출하량 증가와 잦은 강우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까지 겹치면서 농가의 경영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대책에 감귤의 가격 하락 위험을 완화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농산물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에 노지감귤 포함 ▶농업수입안정보험 노지온주감귤까지 확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한 정부 수매 및 시장격리 법적 근거 [illegible] 등을 요구했다. 채해원 기자

11. 12. 제주일보 3

(한라일보: 2026년 11월 12일)

○ 콩 수확-4면



콩 수확 11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의 한 농경지에서 농민이 콤바인을 이용해 콩을 수확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2026년 11월 12일)

○ 브로콜리 수확하는 농민들-6면



브로콜리 수확하는 농민들 11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브로콜리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2026년 11월 12일)

○ “제주감귤 먹고 수능 대박나세요” -6면

“제주감귤 먹고 수능 대박나세요”

‘서귀포in정’ 대학수능 특별기획전 22일까지 운영

조선시대 ‘황감제’ 착안 할인·경품이벤트 등 마련

서귀포시 공식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9일)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11.19 수능대박! 황감제 특별기획전’을 운영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은 조선시대 제주에서 진상된 감귤을 성균관 유생들에게 나눠주고 특별과거시험을 실시했던 역사적 제도인 ‘황감제(黃柑製)’에서 착안해 기획됐다. 황감제가 유생들의 학업과 장원을 기원했던 것처럼 이번 기획전에도 수험생들의 합격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서귀포in정’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현재 감귤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19% 할인쿠폰 1119장을 발급했고, 지난 8일에는 고객 119명을 추첨해 5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어 12일에는 구매고객 중 선착순 19명에게 구매 상품과 동일한 상품 1박스를 추가로 증정하고, 수능 전날인 18일에는 구매 고객 중 1명을 추첨해 3kg 노지감귤 5박스를 증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선시대 황감제가 제주 감귤을 나누며 유생들의 학업과 장원을 기원했던 것처럼, 이번 황감제 특별기획전도 수험생들의 좋은 결과를 응원하는 의미를 담았다”며 “감귤이 수험생들에게는 응원의 선물이 되고, 소비자들에게는 서귀포 감귤의 가치를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귀포in정’은 2021년 1월 15일 론칭 이후 올해 9월 말 기준, 누적 매출액 392억원을 달성하는 등 서귀포시 농수축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11. 12. 한라일보 6